IOC, 러시아 평창올림픽 참가 불허…흥행 먹구름

‘도핑 파문’ 동계스포츠 5강 러시아 출전금지

아이스하키 ‘NHL’ 불참 이은 또 하나의 악재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국가적 도핑 파문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불허했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당시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 일행.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러시아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불허하면서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 흥행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IOC는 6일(한국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최악의 도핑 파문을 일으킨 러시아 선수단에 대해 평창올림픽 참가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IOC는 올림픽 참가를 원하는 러시아 선수들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개인 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는 길은 열어뒀다. 러시아가 이를 허용할 지는 미지수다.

러시아는 IOC의 이번 결정에 반발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지만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러시아 정부가 선수들의 개인 자격 참가도 금지하는 동시에 대회 자체를 보이콧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러시아의 평창동계올림픽 불참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흥행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러시아는 미국, 독일,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과 함께 동계스포츠 5대 강국이다.

이번 IOC의 결정과 러시아의 대응에 따라 러시아의 수많은 동계스포츠 스타들이 평창 무대에 서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특히 쇼트트랙의 제왕으로 불리는 빅토르 안(한국명 안현수)이나 피겨요정 예브게니아 메드베데바 등 국내팬들에게도 익숙한 선수들이 포함된다.

한국에서 러시아로 귀화한 빅토르 안은 지난 2014년 소치올림픽에서 3관왕에 오르는 등 올림픽 금메달 6개를 목에 건 쇼트트랙 최강자다.

러시아 유니폼을 입은 빅토르 안이 고국인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나서는 것만으로도 많은 이슈를 불러올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광경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김연아 은퇴 이후 ‘피겨요정’이라는 타이틀을 이어 받은 세계 여자 피겨 1인자 메드베데바의 불참도 평창 흥행에는 큰 악재다.

이미 동계스포츠 최고 인기 종목인 아이스하키에 세계 최고 리그인 북미아이스하키(NHL) 선수들의 평창올림픽 불참이 결정됐다.

여기에 러시아가 세계 2위 리그인 러시아 아이스하키리그(KHL) 소속 선수들의 참가까지 막아선다면 아이스하키 경기 수준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아이스하키는 대회 기간 내내 예선부터 결승까지 가장 활발하게 경기가 펼쳐진다. 동계올림픽의 꽃이라 불리며 입장권 판매와 중계권 수익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러시아가 도핑 파문에 대한 IOC의 결정을 수용하고 개인 자격으로라도 참가를 희망하는 선수에게 길을 열어준다면 평창올림픽 조직위는 흥행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다.

그러나 자국 선수들에 대한 평창행을 전면 불허한다면 흥행에 있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쇼트트랙 제왕’ 안현수, 대한민국→러시아→OAR

러시아 참가 금지에 4번째 올림픽 참가 무산 위기

‘쇼트트랙 제왕’ 빅토르 안(32·러시아)은 고국 평창 동계올림픽 무대에서 두 번째 국기마저 떼고 달리게 될 것인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6일(한국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국가적 약물 스캔들을 일으킨 러시아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금지했다.이 결정에 따라 러시아 선수들은 러시아 국적으로 올림픽 무대에 설 수 없다.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lympic Athlete from Russia·OAR)’ 자격이라면 출전할 수 있다.

러시아의 평창 올림픽 참가 금지로 흥행에 빨간불이 들어온 가운데 남자 쇼트트랙 스타 빅토르 안의 출전여부에 관심이 쏠린다.한국 쇼트트랙의 간판으로 활약한 안현수는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에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 3관왕에 올랐다.하지만 무릎 부상에 이은 빙상연맹과 갈등으로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는 출전하지 못했다.

이후 소속팀 해체로 인해 새로운 곳을 찾던 중 러시아에서 구애의 손짓을 보냈다. 러시아에서 훈련하던 그는 2014 소치 올림픽을 앞두고 러시아로 귀화하며 국내팬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러시아 국적과 함께 ‘빅토르 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소치 올림픽에 나와 500, 1000, 5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3관왕에 올라 부활을 알렸다.

러시아의 쇼트트랙 영웅으로 칭송받으며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 올림픽에서 또 한 번의 금빛 질주를 예고했다.

그러나 빅토르 안은 러시아에게 내려진 IOC의 징계 탓에 자신의 4번째(2002 솔트레이크 올림픽 출전) 올림픽 참가의 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IOC는 러시아 출신 선수들 중 도핑 테스트를 통과한 선수에 한해 개인 자격으로 올림픽 출전을 허용한 상태다. 빅토르 안의 올림픽 출전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러시아가 올림픽 참가 자체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

빅토르 안이 평창 무대에 서게 된다면 러시아가 아닌 ‘OAR’ 소속으로, 러시아 국기가 아닌 올림픽 오륜기를 달아야 한다. 금메달을 목에 걸더라도 ‘올림픽 찬가’가 울려 퍼지게 된다.

이미 여러 사정으로 인해 태극기가 아닌 러시아 국기를 달고 올림픽에 출전했던 빅토르 안이다.고국에서 열리는, 어쩌면 선수생활 마지막 올림픽 무대가 될지 모를 평창 올림픽에서 두 번째 국기마저 떼야 하는 얄궂은 운명에 직면해 있다.

뉴시스

양현종, 또 MVP…조아제약 프로야구대상

이정후도 신인상…장원준 2년 연속 최고 투수상

2017 조아제약 프로야구대상 시상식이 6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렸다. 최고구원투수 롯데자이언츠 손승락, 최고투수 두산베어스 장원준, 대상 KIA타이거즈 양현종, 최고타자 SK 와이번스 최정, 신인상 넥센 히어로즈 이정후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7 조아제약 프로야구 수상자

▲대상 양현종(KIA) ▲최고투수상 장원준(두산) ▲최고타자상 최정(SK) ▲최고구원투수상 손승락(롯데) ▲프로감독상 김기태(KIA) ▲프로코치상 정경배(SK) ▲신인상 이정후(넥센) ▲공로상 이만수(KBO 육성위원회 부위원장) ▲수비상 손시헌(NC) ▲기록상 김태균(한화) ▲기량발전상 박세웅(롯데), 임기영(KIA) ▲재기상 조정훈(롯데) ▲특별상 이승엽(삼성), 류현진(LA 다저스) ▲아마 MVP 강백호(kt) ▲아마 지도자상 유정민(서울고) ▲조아바이톤상 박용택(LG) ▲헤포스상 박건우(두산)

역대 최초로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 최우수선수(MVP)를 동시 석권한 양현종(29·KIA)이 MVP 타이틀을 추가했다. 6일 서울 플라자호텔 별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7 조아제약 프로야구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양현종은 올해 정규시즌 31경기에 출전해 193⅓이닝을 소화하며 20승 6패 평균자책점 3.44를 기록했다. 1995년 이상훈(LG·20승) 이후 22년 만에 토종 선수 20승을 올렸다.

양현종의 활약은 한국시리즈에서도 이어졌다. 2차전 선발 등판해 1-0 완봉승을 따냈다. 우승을 확정한 5차전에서는 세이브를 올리는 등 1승 1세이브로 KIA의 11번째 통합 우승을 견인했다.

이러한 활약으로 KBO리그 최초로 정규시즌 MVP와 한국시리즈 MVP를 함께 따냈다.

양현종은 전날 선수들이 뽑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플레이어스 초이스 어워드’에서 ‘올해의 선수상’을 받은 데 이어 이날 조아제약 대상까지 받으며 MVP를 싹쓸이하고 있다. 상금 1000만원과 순금 도금 글러브를 부상으로 받았다.

넥센 이정후도 신인상을 또 하나 챙겼다. 고졸 신인으로는 역대 최초로 전 경기(144경기)에 출전했다. 3할 타율에 179안타 111득점을 올리며 역대 신인 최다안타(종전 LG 서용빈 157개)와 최다득점(종전 LG 유지현 109득점)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다.

장원준(두산)은 2년 연속 최고투수상을 받았다. 14승 9패 평균자책점 3.14의 성적으로 소속팀 두산을 3년 연속 한국시리즈로 이끌었다.

최고타자상은 최정(SK)에게 돌아갔다. 최정은 46홈런으로 2년 연속 홈런왕과 함께 113타점을 올리며 KBO리그를 대표하는 거포로 자리매김했다.

최고구원투수상은 37세이브를 올린 손승락(롯데)이 수상했다. 올 시즌 7년 만에 1군 무대에 복귀한 조정훈(롯데)은 재기상, 박세웅(롯데)과 임기영(KIA)은 기량발전상을 공동 수상했다.

기록상은 86경기 연속 출루 신기록을 세운 김태균(한화)의 몫이다.

KIA의 통합우승을 이끈 김기태 감독이 감독상을 받았다.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는 이승엽(삼성)과 부상에서 돌아온 류현진(LA 다저스)이 특별상을 수상했다.

뉴시스

‘싸움닭’ 조계현, KIA타이거즈 단장 됐다…파격인사

선수 출신 7번째 단장

KIA 타이거즈의 조계현(53) 수석코치가 선수출신 단장 행렬에 가세했다. KIA는 6일 2017시즌 통합 우승에 일조한 조계현 수석코치를 단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허영택 전 단장이 구단 사장으로 승진 발령되면서 공석인 단장 자리에 오르게 됐다.

선수 출신인 조 단장 임명으로 10개 구단 중 선수 출신 단장은 두산(김태룡), NC(유영준), SK(염경엽), LG(양상문), 넥센(고형욱), 한화(박종훈)까지 모두 7명이 됐다.

조 단장은 군산상고와 연세대를 졸업하고 1989년 KIA의 전신인 해태 타이거즈에서 프로로 데뷔했다. 해태(1989~1997년), 삼성(1998~1999년), 두산(2000~2001년) 등을 거치며 13년 동안 선수로 활약했다. 통산 320경기에 출전해 126승 92패 17세이브 평균자책점 3.17이라는 화려한 성적을 남겼다.

은퇴 후 지도자로 경험을 쌓은 조 단장은 올 시즌 수석코치로 김기태 감독을 보좌하며 KIA 타이거즈의 통산 11번째 통합 우승에 힘을 보탰다.

KIA는 “야구인 출신 단장 선임으로 전문성을 강화한 인사”라며 “풍부한 지도자 경력을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팀을 운영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두산, 외야수 백민기 지명…민병헌 보상선수

신장 185㎝, 체중 85㎏…기동력 좋고 센스 뛰어나

두산 베어스는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롯데로 이적한 민병헌의 보상 선수로 외야수 백민기(27)를 지명했다고 5일 밝혔다. 백민기는 성남고와 중앙대를 졸업하고 2013년 신인 드래프트 5라운드 전체 45순위로 롯데 유니폼을 입었다.

신장 185㎝, 체중 85㎏인 백민기는 기동력이 좋고 센스가 뛰어나다는 평가다.

데뷔 첫해 1군 무대를 밟으며 30경기에 나섰지만 타격에 어려움을 겪었다. 퓨처스 리그에서 뛰다 2015년 중반 현역병으로 입대, 군 복무를 마쳤다.

두산은 “코칭스태프 회의에서 백민기와 관련해 롯데 출신 코치들의 좋은 평가가 있었다. 대학 시절을 지켜본 스카우트 팀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왔다”며 “비슷한 유형의 중복 포지션에 대한 고민을 한 결과 백민기를 지명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지명은 구단의 미래를 염두에 둔 결정이다. 잠재력이 풍부하고 군 문제까지 해결한 백민기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